

엔지니어링, 플랜트 수주 “최대”

2013년 1-9월 수주 462억달러 ... 2013년 650-660억달러 예상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은 2013년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6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2013년 1-9월 해외 플랜트 수주가 46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7%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수주는 650억-660억달러에 달해 2011년 650억달러, 2012년 648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플랜트 수주 증가는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셰일가스(Shale Gas) 생산 확대가 국내 플랜트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해 정부와 관련 엔지니어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가 30% 이상 증가하며 가스가 전체 에너지원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박광순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저렴한 셰일가스 생산에 적극 나서면서 가스를 처리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플랜트, 가스복합 화력발전소의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며 “천연가스 관련 플랜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시공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23>